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9월 11일(주일) 제1115호

2016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

묵상하는 목수들 Contemplative Carpenters

10월 5~8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이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묵상하는 목수들(Contemplative Carpenters)'을 주제로 막 오른다.

요셉행전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남성들을 위한 집회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장이 펼쳐진다. 20세 이상 남자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은 10월 5~7일은 저녁 오후 7시 30분, 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폴 스티븐스 교수(리젠트 칼리지)가 5일 거룩(다니엘: 비협조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일하다), 6일 리더십(노헤미야: 왕국에 영향력을 미치다), 7일 사명(에스더: 하나님의 미션에 사로잡히다), 8일 영성(예수: 직업의 거룩함을 보여주다)을 주제로 강의한다. 집회 마지막 강의를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재즈브라스밴드, 스캇드라마팀, 테너 배재철, 문애란 대표, 천종호 판사, 방송인 강석우 집사,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합 대표)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폴 스티븐스 교수는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 명예교수다. 일과 영성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저서로는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21세기 평신도 신학> 등이 있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5천원이다. 10월 2일까지 접수한다.

하나은행 573-910016-41605 (온누리교회 부흥집회)

문의: 02-570-7322, 732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MAIN SPEAKERS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



폴 스티븐스 교수
리젠트 칼리지

이번에는 오사카다!

10월 2일까지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집

러브소나타 오사카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늘(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와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는 일본에서 열리는 25번째 집회다. 11월 22일과 23일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막 오른다. 22일에는 교회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전야집회), 23일에는 한일교류만찬회(리더십포럼)와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다.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테너 배재철, 소프라노 김영미, 플룻연

주자 송솔나무,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박진아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교회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가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 김하중 장로가 '기도', 이기복 교수가 '가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가스펠나이트 집회에서는 오타 유사쿠 목사(간사이성서학원장)가 설교할 예정이다.

오사카는 일본 제2의 상업도시다. 면적은 1,905km²로 일본 혼슈(본섬)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도쿄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10%가 오사카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상업과 외교의 도시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사론데코 팀에서 러브소나타 오사카 행사에서 쓸 화관을 제작할 봉사자를 모집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신관 미션홀에서 화관을 제작하고 있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온누리교회 전임교역자 청빙

9월 21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

온누리교회 성인, 대학청년부, 차세대 전임교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목회의 소명과 인격을 구비한 1977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정규 대학 및 신학대학원 M.Div.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17년 2월)이다. 전임교역자 청빙과정은 서류 및 설교심사, 인사위원회 개별면접, 담임목사 개별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 및 설교심사 합격자는 10월 2일 공지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전임교역자 청빙에 응시할 교역자는 9월 21일까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목회자 추천서 2부(총 2인), 최근 설교 동영상 1편, 동영상 설교 원고 1부,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신대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를 서빙고 온누리교회 목회기획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를 참고하면 된다.

제출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본관 2층 목회기획실

문의: 02-3215-323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9월 18일자 신문은 추석 연휴 관계로 휴간합니다.

특집_ 아주 특별한 선물 CGNTV 2면 기획_ 크리스천들도 예외 없는 명절스트레스 4-5면 절기_ 추석 감사예배 및 추도예배 6면

만남 그리고 사람들 -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와 정은경 대표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 ‘CGNTV’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의 아주 특별한 결혼식.



정은경 대표가 후원한 캐릭터 스티커를 받은 캄보디아 어린이.

CGNTV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는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는 CGNTV로부터 한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 CGNTV 덕분에 난생 처음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어봤다.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울랄라1537’의 정은경 대표는 CGNTV를 후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 부부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20년 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살았던 부부가 근사한 턱시도와 아리따운 웨딩드레스는 입는 것만으로 괜히 사람을 울렸다. 그렇게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턱시도 입은 당당한 신랑, 웨딩드레스 입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꿈을 이뤘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고아 12명을 돌보고 있는 박관일 선교사도 고아다. 최미숙 선교사를 만나기 전까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였다. 가난과 외로움이 늘 그의 곁을 따라 다녔다. 어린 시절 보육원을 뛰쳐나오고,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말았다. 희망 없는 삶을 살았다. 방향하던 시절 소년원에 입소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정말 좋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소년원에서 출소한 다음에는 선교단체에서 생활했다. 한 목사님의 소개로 최미숙 선교사를 만났는데 3일 만에 결혼을 약속한다.

“남편이 프리포즈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살자’ 길래 살았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반지도 없고 웨딩드레스도 못 입었지만 우리를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반지도 선물해주고, 예쁜 드레스도 입혀주고 싶었죠. 그런데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었

어요. 한 달에 5만원으로 생활할 때였거든요. 반지도 없고 드레스도 없는 결혼식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교밖에 모르는 부부 선교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답게 더 아름다운 꿈을 꿔다.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한 것. 이들 부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겨자씨고아원’을 세우고 12명의 고아들의 부모가 되어줬다. 에이즈 환자들도 정성껏 돌봤다. 무뚝뚝해 보이는 박관일 선교사가 빵을 구워 아이들에게 대접하고, 간호사 출신인 최미숙 선교사는 정성을 다해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들 부부는 고아들의 부모가 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기에 자신들의 처지는 늘 뒷전이였다. 결혼기념일 한 번 챙긴 적이 없다. 케냐에서 공부 중인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해도 아이들을 만나러 갈 비행기 값을 아껴 고아들을 돌봤다. 최미숙 선교사가 뇌종양이 생겨 치료를 받을 때도 선교가 우선이었다. 빨리 탄지니아로 돌아가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말 그대로 선교밖에 모르는 부부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에 감동한 CGNTV가 그들 부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식을 선물하기로 했다. CGNTV 직원들이 반지와 웨딩드레스를 들고 직접 탄자니아 잔지바르로 향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

잔지바르 공항에서 만난 최미숙 선교사는 CGNTV 직원들이 ‘독수리 오형제’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온 걸로 알고 있었다. 박관일 선교사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수개월 전부터 CGNTV 직원들과 함께 치밀한 첩보 작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아내 모르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공유하니깐 작가님께 문자메시지가 오면 지우기 바빴어요. 겨자씨고아원 아이들은 한 달 전부터 축가를 연습했어요. 아이들과 하루 종일 붙어있으면서 아내가

눈치 채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내의 시야를 가려주신 게 분명해요.”

CGNTV 직원들은 최미숙 선교사에게 ‘독수리 오형제’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것처럼 인터뷰도 하고, 취재를 진행했다. 최미숙 선교사가 정신없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박관일 선교사는 결혼식 때 사용할 웨딩 케이크까지 손수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멋진 프리포즈와 결혼식뿐이었다.

인터뷰를 하는 줄 알고 최미숙 선교사가 방문한 곳에 박관일 선교사가 서 있었다. 방에는 촛불과 풍선, 꽃으로 한껏 장식되어 있었다. 박관일 선교사가 아내 최미숙 선교사에게 화관을 씌어주고, CGNTV 직원들이 모금해서 마련한 금반지도 건네주었다. 진심이 담긴 세레나데가 이어졌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 나와 결혼해줘.”

선교사의 아내로, 고아들의 엄마로 살아온 지난 10년 동안의 고생이 한 순간에 위로 받은 순간이었다.

“남편이 20년 만에 프리포즈를 했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특히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우리 가족을 위해 반지까지 마련해주신 CGNTV 직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생전 처음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선교사 부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겨자씨고아원 아이들과 현지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케냐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자녀 정실, 진실 남매도 깜짝 방문했다. 이날은 박관일 선교사가 죽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하나님께 선교가 너무 힘들다고 영영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CGNTV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위로해 주셨어요. 결혼식 이후로 남편 바가지 굵을 건수가 하나 없어져서 조금 아쉽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결혼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니다. 앞으로 힘들 때는 CGNTV가 준 선물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

해 사역하겠습니다.”

“CGNTV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거든요”

이번에는 CGNTV에 후원하는 것이 가장 특별하다고 고백하는 후원자를 만났다. 그 주인공은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울랄라1537’의 정은경 대표다. 그녀는 “회사는 교회 같아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윤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제품 하나하나 기도와 말씀 없이는 만들지 않는다. 그녀는 CGNTV 애청자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런’, 시골교회 목회자들을 찾아가는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전 세계 선교사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독수리 오형제’를 즐겨본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울랄라1537이 CGNTV에 후원을 시작했다. 누구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류가 대부분이었다.

그녀가 CGNTV에 후원하는 제품들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모른다. 선교지 곳곳에 보내면 그것보다 좋은 선물들이 따로 없었다. 그녀가 후원해 준 캐릭터 스티커가 이번 여름 안테나 설치를 위해 방문한 캄보디아 국제학교 학생들에게도 전해졌다.

“CGNTV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CGNTV를 후원하는 것이 매우 특별해요. 작지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만든 작은 제품들이 열광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통로가 되어 준 CGNTV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CGNTV 정기후원 행사

일시: 10월 2일

방법: 후원 작성서 작성 제출

문의: 02-796-2243

* 위 프로그램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분별 있는 사랑을 위한 기도

빌립보서 1:9~11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력 있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순결하고 흠 없고, 열매로 충만하고, 영광 올리는 삶 사십시오.”

도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성숙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변화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12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붙잡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달아나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철저하게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환경, 물질, 형편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만족하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달아나는 일에 있어서는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했듯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영성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이 기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배고픔이 없다면 어떻게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변화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퍼서 읽지 않으면 영혼의 배고픔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굶주림에 사로잡힌 사람이 음식을 보고 할레벌떡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가는 줄도 모릅니다. 이러한 갈망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었고,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 있는 사랑을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9절).

여기서 중요한 기도제목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 첫째, 그들의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더욱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주목했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분명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코이노니아 역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과 부딪히면 “하나님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식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를 깨닫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이 지혜입니다. 총명은 지혜와 친척관계입니다. 내면을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무분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분별한 사랑을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누구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지만 분별 있게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분별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선교를 잘못 이해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들을 진멸하라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지혜와 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둘째,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

기를 기도합니다”(10절).

이 기도제목의 핵심은 분별을 위한 기도입니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과 더 선한 것을 분별하고, 더 선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과 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선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다툼과 분열은 각자가 선하다고 믿는 것끼리의 충돌입니다. 어느 것이 더 선한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이해력, 통찰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후반부를 보면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 향하여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그가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어거스틴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롬 1~2절).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하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드림, 변화, 분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합니다. 내가 먼저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마음에 변화가 오고, 그 변화된 마음이 분별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13편에 계속〉

기도를 배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음으로써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 언어를 배우듯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소리를 들음으로써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기도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영적보화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를 편지에 요약해서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성도들이 읽음으로써 마치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육을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적어 놓은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중보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전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회를 향하여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지적만으로는 절대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은 이 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교훈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자하는 내용을 전해준다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8절).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고, 나눠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



기획_크리스천들도 예외 없는 명절 스트레스

명절증후군, 가정 붕괴 부른다

주부, 남편, 미혼남녀 모두 앓고 있는 육체, 심리적 스트레스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입장에서 배려하기가 유일한 해결책

추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그리운 가족들 만나러 고향 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그런데 명절이 모두에게 좋은 날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이에게는 1년 중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기도 하다.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을 '명절증후군'이라고 한다. 보통 차례음식 준비하느라 힘든 주부(며느리)들 이야기인줄 알 텐데 아니다. 차례 안 지내는 크리스천들도 명절증후군에 시달린다. 크리스천들이 시달리는 명절증후군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명절증후군은 명절 전후로 주부들이 느끼는 심리적(우울, 무력감), 신체적 증상(피로,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디스크 등)과 징후를 총칭하는 말이다. 명절 내내 다섯 가지 '고'(음식 차리고, 치우고, 쓸고, 닦고, 정리하고)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눈치, 며느리 눈치, 시댁과 친정의 차별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힌다.

명절증후군을 단순히 요리와 집안일을 싫어하는 주부들의 스트레스라고 치부하면 오산이다.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가정폭력과 이혼이 명절 전후로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명절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하루 평균 873건이라고 한다. 평상시 562건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다. 2013년 776건, 2014년 860건, 2015년 94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명절증후군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명절 직후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다음달(3월) 접수된 이혼소송이 3,539건으로 전달인 2월보다 39.3%나 증가했다. 협의이혼도 전달 대비 33.1%나 증가했다. 2013년 설 연휴부터 2015년 설 연휴까지 5번의 명절 동안 이혼소송이 평균 19.9%, 협의이혼은 평균 1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 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명절이 가정 붕괴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남자도, 미혼남녀들도 명절증후군 앓는다

“아무도 모른다. 남편들의 명절증후군을 아내들은 모른다. 남편들의 명절증후군을 (중략)

명절증후군을 남자도 겪는다.
설날 추석날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내 자식 부모, 명절이면
내 얼굴만 쳐다보는데 난 어떡해”

시 '박태훈의 해학이 있는 아침'의 일부분. 주부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명절증후군을 남편들도 겪고 있다. 경제적 부담(49.7%), 장거리 운전(20.3%), 아내의 투정과 구박(16.9%)이 힘들다고 한다(2015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조사).

미혼남녀들에게도 명절증후군이 있다. 취직이나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명절증후군은 극에 달한다. 지난 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409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구직활동 계획에 대해 물었더니 54.4%가 구직활동을 위해 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쉬면 불안할 것 같아서, 놀면 눈치가 보여서, 구직활동 핑계로 가족모임을 피하고 싶어서 등이 이유였다.

지난해 청년사역전문기관 크리스천데이트가 기독교 미혼남녀 6,056명을 대상으로 '명

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조사했는데 '결혼 언제 할래?' (37%),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니?' (32%)였다. 덕담이 상대방에게는 악담이 되고 있다.

김 믿음(가명) 집사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가요?

차례를 지내지 않는 크리스천 가정에도 명절증후군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김믿음(가명) 집사는 친정과 시댁 모두 기독교다.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이고, 시아버지는 장로다. 형님과 시누이 부부는 외국에 나가 있다. 명절에 한국에 오는데 조카들까지 합하면 약 20명이 모인다.

“제사상만 안 차릴 뿐이지 똑같아요. 친척들 모이는 것도 똑같고, 음식 마련해야 하는 것도 똑같아요. 시어머니가 권사지만 어쩔 수 없

나 봐요. 딸은 친정에, 며느리인 저는 시댁에 더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대신 음식 장만은 며느리의 몫이 된지 오래다. 오랜만에 고국에 들어온 시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얼마나 알뜰한지 모른다. 가끔 조카들이 “외숙모만 일하게 하지 말고, 엄마도 일해”라고 편들면 시누이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일해야 하니?”라고 쏘아붙인다.

그때마다 “뭐야, 그럼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꼭 참는다. 거기다 시어머니가 시누이 손에 음식을 바리바리 돌려서 보내는 걸 보면 고깝기까지 하다. “내가 만든 건데, 나도 친정 가고 싶은데...”

김 믿음 집사의 사례처럼 차례 상만 안 차릴 뿐이지 크리스천이나 넌크리스천이나 명절증후군의 양상은 비슷하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렸다. 해결책이 있을까? 김 믿음 집사의 말에 답이 있다.

“수고를 알아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아픈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아요. ‘음식 하나 수고했다, 정말 맛있다,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너도 어서 친정가야지’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크고 탁월한 문제해결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명절을 보내는 가장

“건강한 크리스천 명절문화 만들자”

명절은 하나님과 가족들의 소통의 장 ... 먼저 배려하고, 이해해야
감사예배, 불우이웃돕기 등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의 장으로!

명절증후군,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결혼 42년차 부부이자 가정사역전문가 김성묵 장로(아버지학교)와 한은경 권사(어머니학교) 부부에게 그 방법을 물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명절증후군이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김성묵(이하 김):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는 반가운 날이 명절인데, 오히려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장모, 미혼청년, 청소년까지 그 누구도 명절증후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는 언제 낳을거냐, 아이들에게는 공부 잘하냐, 청년들에게는 취직은 했느냐 등 덕담으로 한 말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보고,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어렵습니다. 사위는 장모가 불편하고, 장모도 사위가 편하지 않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아내들이 힘들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통계에서 아내들에게 ‘명절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보통은 시어머니라고 답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었어요. 남편이었습니. 남편이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야속하다는 거죠. 아내의 어려움을 모른척하거나 시어머니 편을 든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명절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남편들이 아내한테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한은경(이하 한): “한국 남자들에게는 아내보다 부모를 우선시하는 효 문화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다정다감하던 남편이 명절만 되면 시부모 앞에서 공연히 소리친다거나,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 아내 입장에선 열 받고, 섭섭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하면 명절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김: “남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러 갔을 때였어요. 제가 ‘명절에 여러분 집에 먼저 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고마운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들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절에 시댁부터 가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시댁에 먼저 가는 것에 대해 아내한테 고마워해야 합니다’라고 했더니, 당연한 걸 왜 고마워해야 하느냐며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보, 함께 가져와 고마워’라고 아내에게 꼭 표현하라고 조언했어요. 부모님 눈치가 보여 도와줄 수 없다면, 끝나고 나서라도 ‘여보, 힘들었지? 수고해줘서 고마워’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어깨라도 만져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흔히 남편들이 마음상한 아내의 감정을 어루만져주지 않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내의 상한 감정을 살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내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몸보다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며느리들만 시댁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눈치를 봅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저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고요.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며느리를 모신다는 말까지 하겠어요. 시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 내는 요인입니다.”

김: “맞습니다. 명절은 가족들이 소통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의 소중함을 나누는 자리가 불통의 장으로 얼룩지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소통의 중심에 서서 조율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명절을 부담되고 불편하게만 인식하지 말고 온가족이 함께 모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혼남녀, 청소년들도 어른들이 걱정이 되어서 염려하시는 거라고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명절은 하나님이 주신 소통의 장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명절에 집에 오면 점심 같이 먹고 너희들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시댁에서 자고 가라고 하지 않지요. 이렇게 먼저 배려해 주는 것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김: “하례하식, 남비를 없애는 것은 좋지만 소중한 가족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 만들면서

전수되는 비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음식 장만하는 것을 힘들고, 귀찮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기술을 전수받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어머니가 주도권을 며느리에게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에 저희 며느리가 김치찌개를 끓여 온다길래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날에 김치찌개를 먹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에게 주도권을 준다고 말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냥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며느리가 떡국보다 김치찌개를 잘 끓이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명절에 먹는 김치찌개도 맛있던걸요?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애썼더니 오지 말라 해도 오히려 더러고요. ‘일 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인데 어머니 뵈러 가야죠’ 라면서요.”

가족 중에 크리스천이 아닌 구성원이 있으면 차례 지내는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크리스천들이 조금 더 유연하고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 편협하게 보는 건 아닌지, 어느 하나에 얽매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차례 지내는 문제로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족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맞아요.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큰집에 가서 음식 만들고, 어른들께 인사를 시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명절에 빠지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화합의 장인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빠지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마 5:9)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화평케 하는 것도 크리스천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행동했더니 넉크리스천인 저희 형님과 아주버님이 저희 부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웃음).”

김: “명절을 가족전도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가족들에게 ‘우리를 사랑해주신 부모님(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조부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보세요. 다들 좋아할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하지 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본질적으로 명절증후군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한: “크리스천의 명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넉크리스천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명절문화다 보니까 명절증후군,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 가정으로서 구별된 명절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 “적극 지지합니다. 우선 가정에서 감사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족들끼리 밥 먹는 거죠. 또 교회에서 명절에 이웃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한: “맞아요. 우리 가족만 챙기는 명절이 아니라 더 많은 이웃들을 챙기는 것이 크리스천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크리스천의 명절문화를 꼭 만들어서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을 앞둔 크리스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명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혔던 답을 허무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추석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명절 보내십시오.”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추 · 석 · 감 · 사 · 예 · 배

가정 예배 지침

- 1)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 예배는 고인을 추모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을 상 위에 세워 놓고 그 앞에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 3) 미리 찬송가를 틀어 놓음으로써 찬송과 기도 가운데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 4)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풍성한 상품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589장(넓은 들에 익은 곡식)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빌립보서 1:3-6	다같이
설교	감사와 기도, 그리고 복음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중보기도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찬송	경배와 찬양 67장(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감사와 기도, 그리고 복음

들어가는 말

바울이 드로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

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 건너 오늘날의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여정에서 얻은 첫 열매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오늘 본문은 2016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3절).

바울은 빌립보서의 첫 단락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현재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첫 언어를 감사로 삼고 “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며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어 늘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새로운 여정을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4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형편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성도의 세계를 살아가며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오늘 육신의 가족과 신앙의 가족들을 더욱 기억하고 생

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동참하라”(5절).

바울의 감사와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에 동참한 일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에 동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빌립보 성도들을 놀라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이 복음에 동참하며 살도록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더욱 더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 인생에서 온전히 이루어주시길 것입니다(6절).

나가는 말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감사하며 이듬해의 풍농을 기리는 민속 명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가족과 신앙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동참하여 살 것을 다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일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 · 모 · 예 · 배

개식사	인도자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139:7-10 다같이
찬송	찬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복음 14:1-6 가족 중에서
설교	아버지의 집으로 설교자
찬송	찬438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말

고인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단지 고인의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남겨진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1절).

예수님은 곧 있으면 맞이하게 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 진실하게 전하신 당부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의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결코 근심하며 살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인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이 떠나시고 여기에 남겨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3절).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집으로 가는 삶을 연습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며 집을 나서 일을 하다가 하루가 저물 때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우리가 장차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라질 것에 연연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6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고 격

려하셨습니다(4절). 그런데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합니다(5절). 도마의 반문은 원망과 불신이라기보다 간구와 기도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계시지만 다만 위기와 시련과 환란을 당하여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을 맞게 될 때, 그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 말고 도마와 같이 주님께 묻고 구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이 땅의 순례자들입니다.

나가는 말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은 지금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고인을 추모하며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며 순례의 여정을 살 것입니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신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번째 회복프로그램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를 선보인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수립하도록 돕고,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교다. 10월 15일 도곡교육관에서 개강한다.

/ 김미림, 이소정 기자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다.

“제 머리가 심장을 잡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이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메시지다. 이 청소년은 학업성적이 전국 2%에 들 정도로 뛰어난 우등생이었다. 서울의 명문고에 다니는 또 다른 청소년은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학교 욕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이들 뒤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중학생 김모(15)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위기다. 그들이 죽음까지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건강한 정체성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의 문제는 곧 정체성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정체성을 수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몹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체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청소년 상담 건수가 141만 5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학업과 진로 관련 고민이었다.

‘정체성’과 ‘감정’ 다루기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는 건강

한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돕기 위해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를 신설했다. 이 과정은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다. ‘Power Impact’는 온누리교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돕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소년들을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 비전이자 목적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장이 제공된다. 부모들에게는 청소년 자녀들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Power Impact’에서는 ‘정체성

과 ‘감정’ 다루기에 집중한다. 감성적이고 예민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분노하는 청소년들의 아픈 감정도 다룬다.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부모를 위한 강의도 풍성하다.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알려 주는 강의가 청소년기 자녀이해, 스마트폰 시대 자녀코칭, 부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이어진다. 부모들의 감정 다루기 강의도 있다. 자녀와 갈등을 빚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고, 내면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또한 ‘가계도 그리기’를 통해서 윗세대부터 내려온 부정적인 감정과 문제들을 발견하

고 해소하는 방법도 배운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는 10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도곡교육관에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맞춤형 강의를 듣는다. 5주차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1박2일로 수련회를 간다. 8주 과정이 끝나면 청소년들은 해외아웃리치도 간다. 총 25가정을 선발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청소년 20만원, 부모 1인당 13만원.

오민 목사(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담당)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면서 “많은 가족들이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에 참가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문의: 회복사역 02-3215-3532

일정	청소년 강의	부모강의
1주차(10/15-16)	나, 너, 우리(수련회)	회복의 영성
2주차(10/22)	Who am I?	청소년기 자녀이해
3주차(10/29)	God's Will?	스마트시대 자녀 코칭
4주차(11/5)	가정 속의 나	부부의 역할
5주차(11/12-13)	감정 다루기(수련회)	감정 다루기/ 경청
6주차(11/19)	용서	건강한 영성
7주차(12/17)	세계관	용서
8주차(12/24)	건강한 영성	기쁨의 영성
17년 1월	해외아웃리치 수료식	수료식

강사: 광상학, 노희태, 임사라, 이기복, 이기원, 허철, 천정우, 천태현, 권장희 외 전문강사

특강: 이영표(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지홍 교수(연세대학교)

사역칼럼



김지홍 장로
(파워임팩트 담당장로)

해서 정서적인 건강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성장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가정과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가정의 정서적 건강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청소년 문제의 심

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살 예방센터가 전국에 있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학생의 30%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다. 중고생 3명 중 1명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불안감, 친구관계의 갈등으로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온누리교회 청소년들도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온누리교회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바라는 것은 ‘공감’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의 고민을 공감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공감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녀에게 공감해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이야”라고 훈계하며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자녀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강한 정신력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

음에서 하는 말이다. 본인들이 받았던 양육 방식 그대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가 자라는 시대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훈계가 잔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주 안에서 영육 간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온누리교회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들도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가장 영향력을 주는 대상은 1위가 어머니, 2위는 친구나 목회자가 아닌 아버지였다.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고, 어느 학원에 보낼 것인지 고민하기에 앞서 부모 자신

의 정서적 건강을 점검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공감은 관계회복에서 비롯된다. 자녀양육을 교육기관이나 교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적극 나서서 자녀와 함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라”(잠 17:6)는 말씀처럼 자녀의 영광이 되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들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갖출 것이다. 차세대들이 가정과 교회의 앞날을 이끌어 갈 리더가 될 것이다.

신임 순장, 다락방장의 각오

어디서든 사랑하고, 섬기고, 본이 되고

지난 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개최된 ‘온누리 공동체 목양대회’에서 순장 154명, 다락방장 16명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이번에 신임 순장과 다락방장으로 세워진 박은선 순장(브릿지33+공동체), 정태혁 다락방장(수원 온누리교회), 박주현 다락방장(강남D공동체), 홍원일 다락방장(S브릿지공동체)이 각오를 밝혔다.

/ 김미림, 이소정 기자

“사랑의 전달자”



박은선 순장
(브릿지33+공동체)

“순장은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한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활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원들에게 날마다 활력을 제공하는 사랑을 전달하는 순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도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저는 유초등부 교사를 하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좋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차세대 교사를 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겼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원죄가 얼마나 큰지를 뻗속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노숙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던 제게 순장 제의가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매우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서는 것은 물론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순장 제의를 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저는 순원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곳이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원들이 순에 와서 영육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순원들이 순모임에서 새 힘을 얻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트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정태혁 다락방장
(수원 온누리교회)

“신임(新任) 다락방장으로 임명된 것은 하나님께서 신임(信任)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다락방장이라는 직분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순장이 순식구들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이라면 다락방장은 순장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다락방장으로서 공동체 지체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섬기겠습니다.

특히 이번 목양대회에서 차세대들과 청년들이 고백하는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비교해왔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임 다락방장으로 세워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듭날 것을 약속합니다.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올바르게 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꿈을 떠나 사회에 진출할 때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다음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식탁에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구들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박주현 다락방장
(강남D공동체)

“저는 2012년부터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출장이 많다는 핑계로 성경 읽는 것을 등한시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순장을 맡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순장을 맡고 보니 저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강남D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강남D공동체는 20~30대 젊은 부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주말이면 가사와 육아로 몸이 지쳐있습니다. 평일에 시간 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평일에 순모임을 하지만 강남D공

동체는 주일 오후에 순모임을 합니다. 젊은 부부들과 진솔한 나눔을 할 때마다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보통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신앙과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맡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해줍니다. 젊은 부부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면서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다락방장이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체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다락방장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락방장이 되겠습니다.”

“더 기쁘게, 더 가까이”



홍원일 다락방장
(S브릿지공동체)

“다락방장은 ‘항상 처음처럼’ 순종하며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있던 저의 마음을 낮추시고 신앙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런 제게 다락방장이라는 과분한 직분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스물여덟 살 무심코 친구 따라 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와 관련 없이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저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일이면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2010년에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섬김으로 지쳐 있었던 저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2014년에는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제 그만 해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

니다. 그 해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S브릿지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순모임을 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었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난 7월 원발을 다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삶과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제서야 오른손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했던 저의 처음 신앙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S브릿지공동체 순원들의 기도와 병문안도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 다락방장으로 섬겨달라는 제의가 왔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S브릿지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다락방장이 되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 마음의 양식도 영글다

본지에서는 열매 맺는 계절을 맞아 성도들의 마음의 양식도 풍성하게 영글어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글을 연재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소설가이자 교수인 최윤 집사가 '문학과 신앙'을 주제로 글을 보내왔다.

기독교와 문학의 다면적인 병행

문학과 신앙의 관계는 매우 복잡 미묘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역사 속에서 때로는 반목의 관계, 때로는 친밀한 유대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문학은 우리의 믿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문학은 피해야할 영역일까. 만약 문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기독교가 성도에게 요청하는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가. 기독교인은 왜 문학에 관심을 가져야하나.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읽을 수 있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문학이란 어떤 문학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문학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던질 만한 질문들이다. 실제로도 많이 들어온 질문들이다. 어느 질문 하나 단순히 답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문학이 유구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부흥과 또 후퇴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전반적으로 그 부침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학이 그만큼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영역임을 얘기해주고 있다.

문학적 상상력과 기독교적 진실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오랫동안 성장해온 서구교회에서 문학과 신앙의 문제는 늘 말썽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와 문학에 대한 서구 철학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초대교회는 사실 문학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못해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서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와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이 신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글은 그치지 않고 쓰여 왔던 것 같다. 시와 복음서, 시인과 사도들을 극단적으로 비교하며 그 동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융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학이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한 터툴리안(Tertullian, 150~225)이나 제롬(Jerome, 340~420)의 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현대의 기독교 독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도 연극작품을 예로 들어 빠져나올 수 없는 문학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계했다. 중세를 넘어서도 예술이 꽃을 피우는 르네상스 이후에도 이러한 우려는 지속되어 17세기에조차 문학의 가치가 성경적 가치와 위배되는 지를 점검하는 일종의 도덕선생의 역할을 대부분 종교계 지도자인 박사들이 담당했다. 그러니 청교도에서 문학이 어떻게 수용되었을지는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복음의 옆에서, 아래에서 또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개발해



왔다. 우려를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퍼지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재구성되어가는 동안 성실하고도 활발하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영역들을 다채롭게 증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시대에 자주 그러했듯이 서구 교회는 문맹이었던 중세의 대중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종교의 역사나 신앙의 비밀스러운 증언들을 표현하는 데에 시나 성서극, 신비극 등의 문학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우려와 격렬한 반대와 금지에도 불

인본주의 시대와 문학

그러나! 아쉽게도 문학이 가장 사랑받던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로 우리는 깊숙이 접어들어 있다. 문학이 영화나 영상 같은 기술 장르에 밀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동반하는데 이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문학 자체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이자 활동 중의 하나인 문학이 그만큼 말려진 본령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문학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

“파편화되어가는 삶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문학과 신앙의 발전적이며 역동적인 관계를 숙고해야”

구하고 문학은 다양하게 이런 반응을 포용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면서 기독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면서 꽃을 피웠기에 문학과 신앙의 관계는 매우 성실한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실용주의나 실증주의 혹은 과학주의의 세례를 받기 전인 18세기 중·후반까지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기독교 작가였다고 할 수 있기에 그들이 쓰는 작품들에서 발전된 형태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실락원>, 존 번연의 <천로역정> 같은 고전은 물론이고 샤프브리앙, 호손, 엘리엇, 도스토예프스키, 모리악, 루이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문학은 물론이고 많은 일반적인 작품을 통해서도 문학은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적 윤리와 가치관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직조해 냈기에 매 시대마다 읽는 이의 신앙심에 적지 않은 자양분을 공급하였다.

갈등도 배척도 있었고, 어느 정도 현재에도 지속되지만, 최근에 이르기까지 문학은 신앙의 성실한 동반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세심해지고 깊어지는 데에 나름의 역할을 멈춘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대 이후의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의 흐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문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현대의 서구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문학의 부상과 쇠퇴는, 세상의 질서와 미래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21세기로 진입하는 어귀에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문학의 죽음’, ‘작가의 죽음’을 언급했던 것은 그보다 앞서 신의 죽음을 유행처럼 퍼트렸던 인본주의 철학자들의 외침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유사성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와 문학 사이에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어왔던 전통에서 기인한다. 여러 국면에서 이 현상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먼저 문학의 언어가 지닌 특성에서 시작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문학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경향은 흥미롭게도 문학의 내부에서는 아주 초기부터 늘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사라진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문학은 형태나 내용에 있어 변모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은 초대 교회부터 있

어왔던 기독교 내부의 우려와는 아주 다른, 세상에서의 공격에 해당하며, 근대 이후, 과학의 이름으로, 상대주의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인정하는 실증주의, 그와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론적인 가치관이 혼합하여 문학의 방향을 이끌어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그런데 왜 문학은 끊임없이 이러한 위기론의 표적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학에 부여하신 특성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예술 장르와 문학을 구별해 주는 것으로 ‘문학이 언어의 장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로고스)은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성경말씀을 접하며 성경의 말씀은 신앙을 가진 모든 문학가들이 공통으로 삼고 있는 문학의 전범이자 모델이다. 성경이 한 편의 예술 작품이고 거대하며 다채로운 표현 형태를 드러내는 문학작품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성경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해 마지않는 성경은 딱딱한 조직신학의 형태나 근엄한 설교문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문학 양식이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의 언어는 더 나아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일반은 그 자체가 존재가 흘러나오는 호흡이다. 성경이 우리의 말과 언어의 내적 동기와 순화에 대해 그토록 자주 말씀하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이 발설하거나 쓰는 말이 단순히 소리나 문자의 평면적이며 직설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다. 인류의 세속적인 역사 속에서 말씀이 그랬듯이, 문학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대립의 회오리 안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어를 통해 영이 교통하며 언어 속에는 인간의 존재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서구의 기독교적 전통에서 문학은 말씀의 그림자, 그 반영이었기 때문에 문학의 언어는 문학사의 초창기부터 민감한 논쟁의 초점이 된 것이라고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문학은 우리의 일상의 소통 수단이면서 또 한 일상 너머의 영적인 영역으로 고양, 확장시키는 언어를 통해 인간의 영, 육의 삶을 증언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이끌기에 점점 파편화되어가는 현재의 삶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문학과 신앙의 발전적이며 역동적인 관계를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윤 교수

글쓴이 최윤 집사는 소설가이자 서강대 프랑스문화학 전공 교수다.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를 섬기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산모·태아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펼친다.

“산모와 아기를 도와주세요”

NGO 더멋진세상, ‘아프리카 산모·태아 생명 살리기’ 캠페인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르완다, 세네갈, 기니 비사우에서 ‘아프리카 산모·태아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기저귀, 속싸개, 방수커버, 내의(산모, 아기), 필수영양제가 들어있는 ‘BetterMom 키트’ 1개(2만원)를 선물하고, 산전·산후 진찰을 지원하는 운동이다.

캠페인에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 접속

해 ‘산모·태아 생명 살리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일시후원이나 정기 후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나 기부포털 해피빈을 통해 후원할 수도 있다.

NGO 더멋진세상측은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만 매일 55명의 산모가 임신과 출산 중에 사망하고,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돌전에 사

망한다”면서 “아프리카 산모들과 태아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참여방법: abetterworld.or.kr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11-52905(더멋진세상)

네이버 기부포털 해피빈을 통한

공 기부

문의: 02-2271-2248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참여 독려

아프리카의 산모와 태아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의 부재와 영양 결핍으로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전 진찰, 출산 시 전문 의료진의 도움, 산후 관리 등이 시급하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필요성을 산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산

모의 영양 결핍은 자궁 내 태아 사망, 태아 기형 등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산모의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멋진세상에서는 ‘아프리카 산모·태아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산모들에게 BetterMom 키트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산모와

아기를 위한 용품과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제 등이 들어 있다. 무엇보다 산전, 산후 진찰을 통해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정숙 산부인과 전문의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회장)

하반기 순장학교 개강

서빙고 9월 18일, 양재 9월 25일

서빙고와 양재 순장학교가 개강한다. 서빙고는 9월 18일 오후 4시 30분 시온홀, 양재는 9월 25일 오후

2시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순장 및 예비순장, 공동체 목사의 추천을 받은 성도는 참여할 수 있다. 순장학

교에서는 온누리교회의 목양, 순장의 사명, 순모임 인도의 실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는 5만원.

문의: 02-3215-3220(서빙고)

010-8865-8469(양재)

일대일 양육자 재교육 세미나 ‘Mind Up’

일대일 양육자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세미나 ‘Mind Up’이 9월 29일 오후 7시30분 양재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이기훈 목사가 강의한다.

이번 일대일 양육자 재교육 세미

나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운다. 일대일 제자양육 3회 이하 양육자, 휴면 양육자, 양육자, 일대일 제자양육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오는 10월 13일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재교육 세미나 ‘Mind Up’이 열린다. 이서진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2-570-7349

/ 김현준 기자

2017년 상반기 결혼예배 추천

9월 23일 오후 7시 서빙고 두란노홀

2017년 상반기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순서를 9월 23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두란노홀에서 추천한다(서빙고, 양재 함께 진행). 예비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예비신랑과 신부는 등록교인(타교회 상관 없음)이어야 한다. 형제나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는 없다.

추천행사에 올 때는 예약금 50만원과 교인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예비 신랑, 신부 모두 온누리교회 성도이면 주민등록번호, 연락

처를, 예비 신랑, 신부 중 한 명만 온누리교회 성도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타 교회 교인은 소속교회 교인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온누리교회 성도면서 예비신랑과 신부가 타 교회 교인이면 부모의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예비신랑, 신부의 소속교회 교인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은 오후 7시까지 추천 장소에 도착한 사람에게 한해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번에 따라 결혼예배 날짜를 먼저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2-3215-3178

모집

13기 하트스쿨 사역자학교 훈련생 모집

13기 하트스쿨 사역자학교에서 훈련생을 모집한다. 9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문자, 아이스쿨, 카카오톡(hhd3879)으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2만원, 현장등록은 15만원이다.

하트스쿨 사역자학교는 어린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돕는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다. 어린이 맞춤형 회복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훈련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다.

문의: 이현대 전도사 010-

5415-3879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141기 두란노 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141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141기 두란노아버지학교는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

지(www.father.or.kr)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2만원.

1995년부터 시작된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돕고 있다. 문의: 010-9789-7316

/ 이소정 기자



오사카 기·도·제·목

- 9월12일(월) 25번째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 9월13일(화) 현지 실행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 9월14일(수) 오사카 교회들이 연합하고 일치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 9월15일(목) 러브소나타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 9월16일(금)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강사, 출연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 9월17일(토) 중보기도자들과 봉사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 9월18일(주일) 오사카 땅에 재부흥의 역사가 쓰여지도록

유대인 랍비가 전하는 레위기

유대인 랍비가 전하는 레위기 강의를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됐다. 3일 동안 이어진 강의에서 유대인 랍비 요셉술람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레19:18)”가 레위기의 핵심”이라며 “이웃을 사랑하

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유대인 랍비 요셉술람은 예루살렘 로에이스라엘 교회의 목사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펄택 세례간증



/ 김현주 성도(펄택 온누리교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 참 행복한 부부였다. 그런데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싸우기 시작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강박했던 것 같다. 괜한 일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육아 스트레스가 늘어갈수록 짜증이 늘어갔다. 말투에도 짜증이 고스란히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그런데도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위안을 얻고 싶었다.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다. 어릴 적 친구 따라 교회에 몇 번 가본 것이 전부였지만 힘들 때면 하나님을 찾았었다. 시어머니의 꾸준한 권면도 한 몫했다. 남편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시어머니와 형님은 교회를 다니고 계셨다.

“며느라기가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 가족이 변화 된단다. 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되자꾸나.”

일본에 계시던 형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 형님에게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은 교회를 추천해주겠다”며 나를 이끄셨다. 그곳이 바로 펄택 온누리교회다. 나

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앉아 울기 바빴다.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힘들었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교회 밖에서는 찾을 수 없던 평안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주시고 치유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강박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찾아왔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듯 신앙을 존경하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려는 마음이 커져갔다.

신앙은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가족들이 변화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언젠가는 신앙의 손을 꼭 잡고 예배드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한다.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FA 11기 간증



/ 이민경 자매(FA 11기)

나도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사업부도와 부모님의 이혼, 알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20대 초반을 보냈다. 그 와중에 나는 기독교 안티카페에 가입할 정도로 이유 없이 기독교를 싫어했다. 26살이 되던 해 대학원 선배가 수련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했다. 나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의 성격과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오죽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도 바울 같이 달라졌다고 했다.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소식이 끊겼던 아빠와 연락이 닿았다. 그 일이 있고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졌다. 그런데 올해 초 또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아빠가 병으로 쓰러지셨다. 그 위기도 신앙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화요성령집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아빠가 떠올랐다.

아빠는 우리 가정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되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시던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다. 아빠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이면 아빠를 찾아뵙고, 화요성령집회에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어느 날 남동생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아프셨던 아빠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찍은 사진이었다. 동생은 아빠가 양복을 입고 교회를 다녀왔다고 했다. 그 순간 너무 놀라 멍해졌다.

“아빠를 교회로 누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예배에서 단기선교훈련(FA, Frontier Agency) 홍보영상이 상영되었다. ‘우리 가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합격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끊임없이 되물으며 FA 11기 훈련에 동참하게 됐다.

FA훈련을 받으면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배웠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의 좁은 시야를 확장시켜주셨다. 과거에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재능을 선교현장에서 쓰임 받게 되었다. 우리 팀은 9월 중순에 선교지로 떠난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안미성 성도(1단계 수료)

두 가지 감사

내가 전도폭발훈련에 참가한 이유는 전도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다. 전도폭발훈련 예배반주를 해달라는 언니의 제안을 받고 참가하게 됐다. 오랜만에 하는 예배반주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었지 전도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전도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과 학부모, 관리자와의 관계, 수업, 업무 등으로 몹시 지쳐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담임교사 업무를 쉬겠냐는 제안을 받고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복음전문을 암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배반주까지 하려니 더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죄의 습성도 발견했다. 무엇보다 참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낮은 자의 마음을 얻게 되어 기뻐했다.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감사한 것이 또 있다. 남편이 복음을 듣는 것이다. 남편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절대 자기 발로는 교회에 가지 않던 남편이 최근 어려운 일

을 겪으면서 새벽기도에 가기 시작했다. 나의 복음제시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결신하고, 양육도 받는다고 했다. 남편이 순한 양이 되었다. 남편이 전도자의 말을 따라 순순히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웠다. 남편도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움직이게 됐다며 놀라워했다. ‘내 남편은 언제쯤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까?’라고 고민했었는데 20년 동안의 체증이 확 풀렸다. 남편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방전도도 했다. 처음 노방전도를 하러 가는 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내가 낯선 어저씨에게 복음전문을 들려주고 있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남편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도폭발훈련을 더욱 성실하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장된 일꾼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지영(성동광진공동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굳건하지 않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양육자님은 내가 모태신앙인 것을 알고 진도를 빨리 나가셨다. 기초를 다지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던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아이를 낳으면서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중단하게 되었다. 몇 개월 후 양육자님이 교회를 옮기는 바람에 나의 첫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상처만 남고 끝나버렸다.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키우다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순모임에 참석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틈 순장님이 내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을 것을 권유하셨다. 그 때마다 나는 첫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의 쓸쓸함이 떠올라 거절했다. 그래도 계속되는 설득에 지난해 10월부터 두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나의 두 번째 양육자님은 첫 번째 동반자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동반자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면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중간에 그만둔 상처가 있었다. 비슷한 상처가 있어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도 쉽게 열렸다. 매주 한 과씩 일대일 제자양육을 진행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주셨다. 양육자님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 없인 살 수 없다”고 고백했다. 매주 성경을 쓰고, 말씀을 외우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일대일 제자양육이 순식간에 끝나버려서 아쉬웠다.

일대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하나님이 4년 전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를 뜨겁게 만들어 주는 분은 양육자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셨다. 첫 번째 양육자에게 받기만 바랐던 내 마음을 회개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누는 곳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첫 번째 양육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양육자님과 만남이 앞으로는 뜻하지 않는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조차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장로칼럼

이주민들을 위한 추석되기를!



김만순 장로
(안산M센터, 이촌공동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민족에게 한가위보다 더 즐거운 명절이 또 있을까? 해마다 이맘때면 옛 생각, 고향생각에 잠긴다. 고향

의 포근한 하늘과 황금빛 들판, 따듯한 어머니의 미소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 없이 풍성해진다.

이주민들은 어떨까? 안산M센터에서 8년째 이주민들을 가까이 대하면서 그들의 삶을 피부로 이해하게 되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형제들은 몸도 마음도 몹시 고달프기만 하다. 몇몇 형제들은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추석은 그다지 반갑지 않다. 많은 형제들은 기혼자이다. 아내와 자식들을 고향에 두고 왔으니 오죽할까. 그들은 해마다 추석이면 고향생각, 가족생각에 눈물로 베갯잇을 적신다. 정말 서글프고 힘들지만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기에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외롭고 고된 삶을 술과 유흥으로 위로 받으려는 형제들도 있다.

그러나 마음이 굳게 선 이주민 형제들은 오로지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한 번은 예배 중에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주민 형제들에게 “찬양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조금 줄이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

“장로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일과 유흥에 노출되어 있어요. 정결함을 위해 더 많은 찬양, 더 많은 기도가 꼭 필요해요.”

이주민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랑과 회복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있다. 이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데에는 때론 많은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민노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막상 세례식이 다가오면 망설인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배출해 주셨다. A형제도 세례 받는 것을 망설였었다. 고향 친족들의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해서다. 그러다 빛나는 얼굴을 한 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두 번이나 꾸고 그 새벽에 안산M센터로 달려와 세례를 받았다. 정말 기쁘다며 세례식 장면을 당당하게 자신의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추석이 되면 모든 공장, 기숙사, 식당이 문을 닫는다. 이 땅에 온 나그네 이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 텅 빈 기숙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6’이 그들에게 더없이 좋은 안식처가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뜨거운 찬양과 기도, 구원의 역사, 기쁨의 교제가 있다.

우리는 기도로 ‘Harvest 2016’을 준비해야 한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한 형제에게서 문자가 왔다. “장로님 Harvest 2016에 꼭 가고 싶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당장 공장 관리인에게 전화해서 사정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기도했다.

“오 주님! 이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향생각에 눈물 흘리는 추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눈물 흘리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 하나는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온누리미션)

권사칼럼

몽골에 일대일 제자양육의 씨앗을!



김옥숙 권사
(분당B공동체)

나는 39년간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런 내게 영어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2008년 같은 공동체 지체의 요청으로 서울에

서 공부하는 카자흐스탄 자매와 우즈베키스탄 자매에게 영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준 것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해외 아웃리치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야겠다는 비전을 품었다. 올해 마침 분당B공동체가 몽골국제대학을 중심으로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 학생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현지사정은 나의 기대와 달랐다. 방학 중이라 학생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실망스런 마음에 포기하려고 하는데 현지 선교사님께서 내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곳에 한국인 교수님 한 분과 영어를 사용하는 여섯 명의 몽골인이 있으니 꼭 와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몽골 아웃리치 일대일 제자양육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국인 교수님은 방 장로님께서 담당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여섯 명의 동반자는 문 집사와 내가 세 명씩 담당했다. 동반자 한 명과 두 시간씩 하루 여섯 시간을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강행군이었다. 주어진 시간이 3일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모든 과정을 마치는 것은 무리였다. 일대일 제자양육 원칙상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

기로 했다. 3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시작으로 큐티 및 구원의 확신까지 총 6과를 양육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에 나오는 성경구절을 작은 책자로 만들어 함께 읽고 묵상했다. 성경 구절을 찾는 시간도 줄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몽골인들은 성실하게 임했다. 암송구절을 단어 한개도 틀리지 않고 잘 외워왔고, 성경읽기 숙제도 꼬박꼬박 해왔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나눌 때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을 옥도로 만들어주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세례 받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 했다. 나는 다음에 꼭 나머지 부분까지 마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몽골인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면서 한 마리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흥미가 없어보이던 몽골인 동반자들이 나중에는 무척 기뻐하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이다. 그 씨앗을 키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에 그 결과도 맡겨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었다.

며칠 전 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부탁했던 선교사님께서 보내준 소식은 감사 그 자체였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몽골인들이 학교로 돌아가 아웃리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가 양육했던 몽골인들이 다른 교수님들과 연결되어 일대일 제자양육을 계속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몽골에 뿌린 일대일 제자양육의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신앙에세이



안광국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시간을 살 수는 없을까?”

우리는 늘 부족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살고 있다. 공상과 학영화에 나오는 주

인공처럼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설명할 수 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킨다. 이 두 단어는 성격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답게 거대한 낫을 들고 닳지는 대로 먹어치운다. 그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여

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크로노스는 아버지를 낫으로 거세하고 세계를 장악했다. 그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자식의 반란으로 밀려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꼰꼰 삼켜버리는 잔인함도 보여주었다. 레아는 자신에게서 태어난 5명의 아이를 잃어 그 슬픔에 견디다 못해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 냈다. 레아는 막내를 낳은 후 크레타 섬에 아이를 감추고 대신 큰 돌을 강보에 싸서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크로노스는 그것을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삼켜 버렸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진 아이가 바로 올림푸스 신들의 왕 제우스다.

그리스 신화에서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다. 카이로스는 순식간에 휘 지나간다고 하여 순간의 신, 기회의 신으로 불린다. 청년 카이로스는 젊고 아름답고 용모도 특이했

다.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은 타래와 같이 묶여 있었고, 뒤통수는 대머리였고, 알몸을 하고 다녔다. 양발은 날개가 달려 있어 기회가 되면 쏜살같이 사라졌다. 카이로스가 앞에 나오면 언제든 머리카락을 휘어잡을 수는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하여 ‘기회의 신’이라고 불렸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잡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간을 탓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회를 잡았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기본을 ‘시간의 유한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알고, 시간과 함께 계획되어 있지 않는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이라고 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20세가 되기 전 자신의 인생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결심들(Resolutions)을 정하고, 평생 그 결심

을 기억하며 헌신했다. 그 70번째가 ‘한 순간이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한다’이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엡 5:16)라고 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인 ‘엑사고라조’는 사실 아끼다는 뜻이 아니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귀하게 여겼다. 그렇기에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어느새 뜨거웠던 더위가 사라지고 가을이 되었다. 시간 없다고 불평하고 핑계대며 상반기를 보냈는지도 모른다.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세월을 돈 주고 사듯이 하반기를 살기로 다짐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 2016년의 남은 날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14 온누리신문

게시판

2016년 9월 11일(주일) | 제1115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 선교관 403호 문의 :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3:30 장소 :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CMN라파팀 간호사 봉사자 모집 장소 : 서빙고 또는 안산M센터 시간 : 서빙고-셋째 주일 오후 4시~6시 안산-셋째 주일 오후 2시 ~5시 문의 : 심형섭 팀장(010-3227-9915) 은빛날개세미나(은퇴 이후의 삶) 일시 : 9월 23일(금)~10월14일(금) 접수 : 9월 22일까지 시간 : 매주 금 오전10:30~오후 12:30 대상 : 30대 이상 모든 남녀 접수 : ischoolionnuri.org 문의 : 02-3215-3436, 예수사랑부 봉사자 모집 모집 : 찬양인도자, 보컬, 율동 예배 : 11시 20분 문의 : 찬양인도자(010-4201-3113) 진새골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모집 일시 : 10월 8일~11월 5일 매주 토 요일 15시~21시 대상 :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부부 문의 : 정순기 간사(02-444-5882) 일대일 사역팀 스태프 모집 모집분야 :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 자격 : 어린이와 가정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성도로서 양육자 문의 : 박준영 총무(010-4705-2179) 44기 젊은 부부학교 일정 : 10월15일~11월5일 (매주 토) 자격 : 결혼기간 12년차(이상은 별도 문의) 비용 : 35만원(80일 이전 입금시 30만원) 접수 : 10월 10일 (토) 선착순 40가정 신청방법 : 카페 회원가입후 신청서 작성 (http://cafe.naver.com/marriagebuilders) 문의 : 총무 김용환 010-6602-4003 야베스맘 2016 가을세미나 대상 : 남편을 잃은 사별 여성이면 누구나 기간 : 10월 11, 18, 25일(화) 오후 6:30~9:00 회비 : 3만원 (저녁식사, 교재비 포함) 문의 : 팀장 010-3217-9593 부대교회 컴퓨터 기증 요청 위치 : 30사단 포병대대 장비 : 컴퓨터1대(본체, 모니터) 문의 : 010-4723-0828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한국어) 영아부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 주일 오후 2:00 장소 :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틀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 양재 화평홀 문의 :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 양재 비전홀A 시간 :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 이현주 간사(02-570-7553) POINT5 베이스 기타 봉사자 모집 예배시간 : 주일 오전 11시 30분 양재 하용조기념홀 문의 : 박영선(010-7423-7488) 양재 순장학교 일시 : 9월 25일~12월 11일 오후2시 장소 : 양재 드림홀 대상 : 등록교인, 일대일양육자 과정 수료자 문의 : 정호영 간사(02-570-7447) 공사랑 축구선교팀 회원모집 대상 : 온누리교인 혹은 주변 믿지 않는 남편, 아들, 지인 시간 : 매주 토 아침 9시~13시경 문의 : 오명석 총무(010-6470-7131)
부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 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 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비닐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웰터	인천 O32.437.9686 주일성인예배 1부 오전 9시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하1층 2부 오전 11시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하1층 3부 오후 1시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하1층 Web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차세대예배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하1층(오전11시) 영아부 / 유치부 유년부 / 초등부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 고등부 오전 9시 사랑부예배(장애우) 오전 11시 프리스페이스 3층 기쁨홀 주일국제예배 해남라키즈어니언가(영어) 13:00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하1층 몽골어예배 오후 1시 프리스페이스 3층 수요오전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프리스페이스 6층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프리스페이스 6층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상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11:00/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11:00/ 지하1층 킬보론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2016 남성부흥축제 요셉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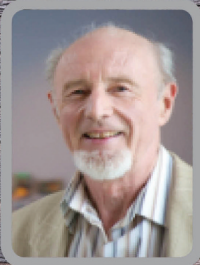
묵상하는 목수들

Contemplative Carpenters

MAIN SPEAKERS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



폴 스티븐스 교수
리젠트 칼리지

GUESTS

강석우 집사 · 방선기 목사 · 천종호 판사
문애란 대표 · 배재철 테너 · 정진호 대표

2016. 10.5(수)-8(토)

수~금 오후 7:30 / 토 오전 10:00 - 오후 5:00

온누리교회 양재 본당 (사랑홀)



등록비 15,000원 (10/2 마감) 하나은행 573-910016-41605 (예금주:온누리교회 부흥집회)

문의 02-570-7322, 02-570-7323

등록절차 남성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 요셉행전 배너 클릭

2. 목회지원실 또는 로비접수처에 신청서 제출 ▶ 회비입금 (입금확인 문자발송)

※ 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필히 확인 전화 바랍니다.